세상에 오신 예수님

11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 1:18~2:12, 눅 2:1~21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배울 말씀

1.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압니다.
2.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 ]이심이라 하니라 (마 1:20~21)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 ]함이라 (마 1:23)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 ]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 ]로다 하니라 (눅 2:13~14)

말씀을 이해하기

2,000여 년 전 인류 역사 전체를 뒤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가장 큰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은 짧았지만 그 영향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컸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며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입니다.

비록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만 그 분의 삶이 33년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은 그의 탄생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이 나와 있으며,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뿐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기적, 그리고 죽음 후 부활하심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2~23)

So all this was done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the Lord through the prophet, saying : "Behold, the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is translated, "God with us" (Mt 1:22~23)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암송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나셨습니다. '예수' 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 써 보세요(마 1:21).

2.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 적어 봅시다(마 2:1~12, 눅 1:39~56, 2:8~20, 2:25~30).

2)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사 53:2, 시 31:12)?

3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성경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그 내용을 요약해 적어 봅시다.

구약의 예언	내 용	신약의 성취
창 3:15		갈 4:4~5
창 12:3	아브라함의 자손	마 1:1
창 17:19	이삭의 자손	눅 3:34
민 24:17	야곱의 자손	마 1:2
창 49:10		눅 3:33
사 9:6	아기로 태어나심	눅 2:6~7
사 9:7	다윗의 위를 상속함	눅 1:32~33
미 5:2		마 2:1
단 9:25	탄생의 때	눅 2:1~2
사 7:14		눅 1:27, 마 1:18~25

4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는지 자신의 경험을 적어 봅시다.

예시 : 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기도수첩에 적힌 나의 많은 기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이루어져서 지워질 때마다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와 함께하십니다.

보기 : 아팠을 때, 시험을 못 봤을 때, 즐거울 때,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전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독할 때, 슬플 때

5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이 '못 보셨으면' 혹은 '못 들으셨으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보고 회개의 기도를 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사 9:6	
월 마 1:1	
화 마 1:23	

수

눅 1:35

목

눅 2:13~14

금

눅 2:30~32

토

요 1:14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이 없습니까? 당신의 그런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폴 린델은 암으로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라고 질문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든 목사님이 그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죽었을 때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 중에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고통을 당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은 당신의 느낌일 뿐이지 정말로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셀 정도로 관심이 많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 121:5~8)

질문 있어요~

시중에 여러 번역본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런 성경을 읽어도 괜찮은지요?

성경을 번역할 때는 원문에 가장 가깝게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눈이 안 내리는 곳에서는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는 구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본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잘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구절은 일본어, 중국어, 혹은 영어가 더 잘 번역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어떤 번역본만이 맞다고 과도하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만 번역하였다면 읽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번역본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 성경에서 확실한 진리를 발견하였느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원어로 된 성경을 배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실은, 아무리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개역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역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성경이 틀렸다면 구원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참조해 보고, 또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번역 내용이 부족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